



해남군 청소년누림문화센터 단체연습실에서 학생들이 밴드 연습을 하고 있다.

/해남군 제공

해남, 청소년 문화거점 ‘자리매김’

누림센터, 이용객 1만4천명 돌파
옥상정원 쉼터·전통놀이 등 제공
26일부터 3주간 프로그램 진행도

해남군 청소년누림문화센터가 개관 1년여만에 누적 이용객 1만 4,000명을 돌파하며, 해남 청소년 문화의 핵심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19일 해남군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개관한 해남군 청소년누림문화센터는 지금까지 초·중·고 청소년 1만 1,200여명을 비롯해 총 1만 4,100여명이 시설을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해남읍 구도심에 4층으로 신축된 건물은 1층 해남시네마, 2·3층은 청소년누림문화센터로 활용되고 있다. 청소년을 비롯한 가족단위 문화여가공간이 한자리에 마련되면서 군민들의 생활수준이 한층 향상된 것은 물론 인근 상권이 되살아나면서 공동화가 심화되어가고 있던 구

도심 활성화의 계기까지 만들어 내고 있다.

청소년누림문화센터는 매월 1,000명이 넘는 청소년들이 이용하면서 청소년 시설이 부족한 군단위 농어촌 지역의 문화공간 확보에 독특한 역할을 해내고 있다.

각종 프로그램실과 교육실 등 총 9개의 공간이 마련돼 있으며, 만 9세부터 24세까지 청소년은 시설 대부분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특히 넓은 공간과 거울, 음향장비를 갖춘 댄스 연습실, 각종 악기와 녹음시설, 매월 최신곡을 업데이트 하고 있는 노래방 기기가 있는 단체 연습실, 청소년들이 원하는 도서를 중심으로 2,200여권을 보유한 북카페는 청소년들에게 최고의 인기를 얻고 있다.

또한 청소년들의 쉼터 옥상정원을 비롯해 전통놀이와 보드게임, 네일아트, 적색사진 등 동아리 활동실에서 청소년의 놀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유익하고, 흥미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해 청소년들의 배움거리도 더하고 있다.

학교에서는 경험하기 힘든 체험강의를 중심

으로 한 수준 높은 정기강좌를 운영하는 한편 면지역 청소년을 위해 찾아가는 강좌를 추가 개설하는 등 명실상부 청소년 맞춤 공간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오는 26일부터는 3주 동안 22개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웹툰과 캐릭터 만들기 등 여름방학 특강 5개 강의를 비롯해 테라리움, 창의보드 게임 등 활동체험 14개, 초등글쓰기 수업 등 3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7월 21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와 함께 관내 지역아동센터 24개소에 9월 5일부터 11월 25일까지 찾아가는 청소년 프로그램을 12주간 운영할 예정이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청소년누림문화센터가 운영되면서 해남 청소년들의 문화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앞으로도 센터가 지역 청소년의 문화·예술적 감수성을 강화하고 미래 인재에 필요한 창의성을 계발하는 산실로 확고히 자리매김 하도록 지속적인 시설투자과 함께 정책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해남=박병태 기자

목포, 시민 참여 자율적 방역 집중 홍보

코로나19 재유행 방역대책 수립
목포시가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방역대책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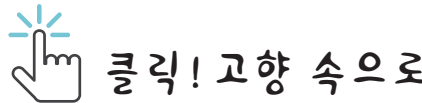
19일 목포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코로나19

재유행 역제를 위한 긴급 방역대책회의를 갖고, 취약시설 방역 관리강화와 지역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시는 시민 수용성과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기존의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의무적 규제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상대적으로 치명률이 높은 취약계층의 보호와 시민 참여에 기반한 자율적 방역 분위기 확산을 위해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생활 방역수칙을 집중 홍보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중증도와 치명률을 줄이는 데 여전히 효과적인 수단인 예방접종을 강조하고, 고령층을 중심으로 4차 예방접종을 적극 독려한다. /목포=박승경 기자



클릭! 고향 속으로

체력검사 45→65점·인성검사 신설

나주, 환경미화원 10명 공개 채용

25~27일 원서 접수

나주시가 민선8기 출범 후 ‘확 바뀔’ 채용 기준을 적용해 환경미화원 10명을 공개 채용한다.

나주시는 최근 시청 누리집에 ‘2022년 환경미화원 채용계획 공고’를 게시하고 오는 27일까지 응시원서를 접수한다고 19일 밝혔다.

환경미화원 채용은 2020년 7월 이후 2년여 만이다. 지난 해 채용시험 과정에서의 공정성 논란과 급품 수수 등 각종 의혹이 불거지면서 장기간 채용이 보류돼왔다.

시는 2021년 정년퇴직자 4명을 비롯해 폐기물 처리 수요 증가 등 업무 여건을 고려해 총 10명의 환경미화원을 선발할 계획이다.

먼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체력시험은 기존 45점에서 60점으로 15점이 증가했으며 종목

신설과 배점이 소폭 조정됐다. 면접시험의 경우 45점에서 20점으로 점수가 대폭 조정됐다. 채용 과정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인성 검사’가 신설된 점도 눈길을 끈다. 10점 만점인 인성검사는 서류·체력시험을 통과한 응시자에 한해 전문기관에 위탁·평가한다.

이를 종합하면 환경미화원 채용 절차(배점)는 총 100점 만점에 서류심사 (10점), 체력시험(60점), 인성검사(10점), 면접시험(20점) 순으로 이뤄진다.

나주시 환경미화원 응시자격은 공고일 현재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이상 55세 이하(1967년 7월 14일~2004년 7월 13일)의 신체 건강한 사람이다.

원서 접수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 간 나주 종합스포츠파크 다목적체육관으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나주=이재수 기자



장성군이 최근 상무대와 상생협력 강화 간담회를 가졌다.

/장성군 제공

장성-상무대, 민선 8기 첫 상생협력 간담회

장성군이 민선8기 들어 처음으로 ‘장성군-상무대 상생협력 강화 간담회’를 열었다.

19일 장성군에 따르면 최근 장성을 소재 식당에서 김한중 장성군수와 고재진 장성군의회의장, 한영훈 상무대 보병학교장, 강인규 포병학교장, 박수 기계화학교장, 류동관 화생방학교장이 소통과 협력방안 모색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상무대는 ▲상무대 군인, 가족들을 위한 작은 영화관 마련 ▲음악회 개최 ▲상무아파트 진입도로 개설 ▲문화·체육시설 이용 혜택 ▲보훈가족 우대 등을 건의했다.

장성군은 간담회 정례화, 업무 활성화를 위한 군-상무대 교류방문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성=전일용 기자

무안공항, 해외입국자 방역택시 운행

무안군은 무안국제공항 국제선 운항이 재개됨에 따라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에 대비해 방역택시를 운행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이용대상은 무안국제공항 해외입국자 중 방역택시 이용희망자로, 발열 또는 기침 등의 증상이 있는 자, 단기체류 외국인, 내국

인 입국자 중 도착 후 PCR 음성확인서 부착한 확인자이다.

현재 군은 방역택시 7대를 지정해 무안국제공항 인근에서 운행 중이며, 향후 코로나19의 추세에 따라 증차할 계획이다. /무안=박주현 기자



현대삼호중공업, 저소득층에 밀키트 전달

영암군은 최근 현대삼호중공업과 현대중공업그룹일퍼센트나눔재단에서 영암군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1,500만원 상당의 밀키트 150세트를 기탁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기탁된 성품은 무더운 여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과 독거노인 150가구에 지원될 예정이

다.

현대삼호중공업 박한규 수석인사 총무담당장은 “생활이 어려운 주민분들이 여름을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직원들의 자발적인 기부를 통해 알차게 밀키트 세트를 준비했다”라며 “동절기에도 지역사회를 위해 나눔활동을 이어 가겠다”고 뜻을 밝혔다. /영암=최복섭 기자



나주 송백농원 대표, 성금 700만원 기탁

나주시 왕곡면은 관내 송백농원 김송백 대표가 최근 이웃돕기 성금 700만원을 기탁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송백 대표는 “코로나19 재유행과 경기 불황으로 어느 때보다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를 돕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기탁 소감을 밝혔다.

왕곡면은 기탁 성금을 복지사각지

대에 놓인 저소득 취약계층 가구에 전달할 예정이다.

강득원 왕곡면장은 “지역사회 발전과 이웃과의 나눔을 묵묵히 지속해온 김송백 대표에게 감사드린다”며 “기탁자의 뜻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 가구를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조종권 기자



화순, 생활개선연합회 하계 수련회

화순군은 최근 도곡면 누리관에서 2022년도 한국생활개선화순군연합회(회장 김순내) 회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하계수련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화순군 농업 발전을 다짐하고 회원들 간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해 마련됐다.

개회식에서는 생활개선회 활성화

에 이바지한 ▲최용남(이서면) ▲정민순(백아면) 회원이 화순군수 표창을 ▲이민경(도암면) ▲정경숙(정풍면) 회원이 각각 중앙연합회장상, 도연합회장상을 받았다.

농업 활동에서 실천할 수 있는 탄소중립 실천 교육, 근골격계 질환 예방 농작업 안전교육도 진행됐다. /화순=이종백 기자